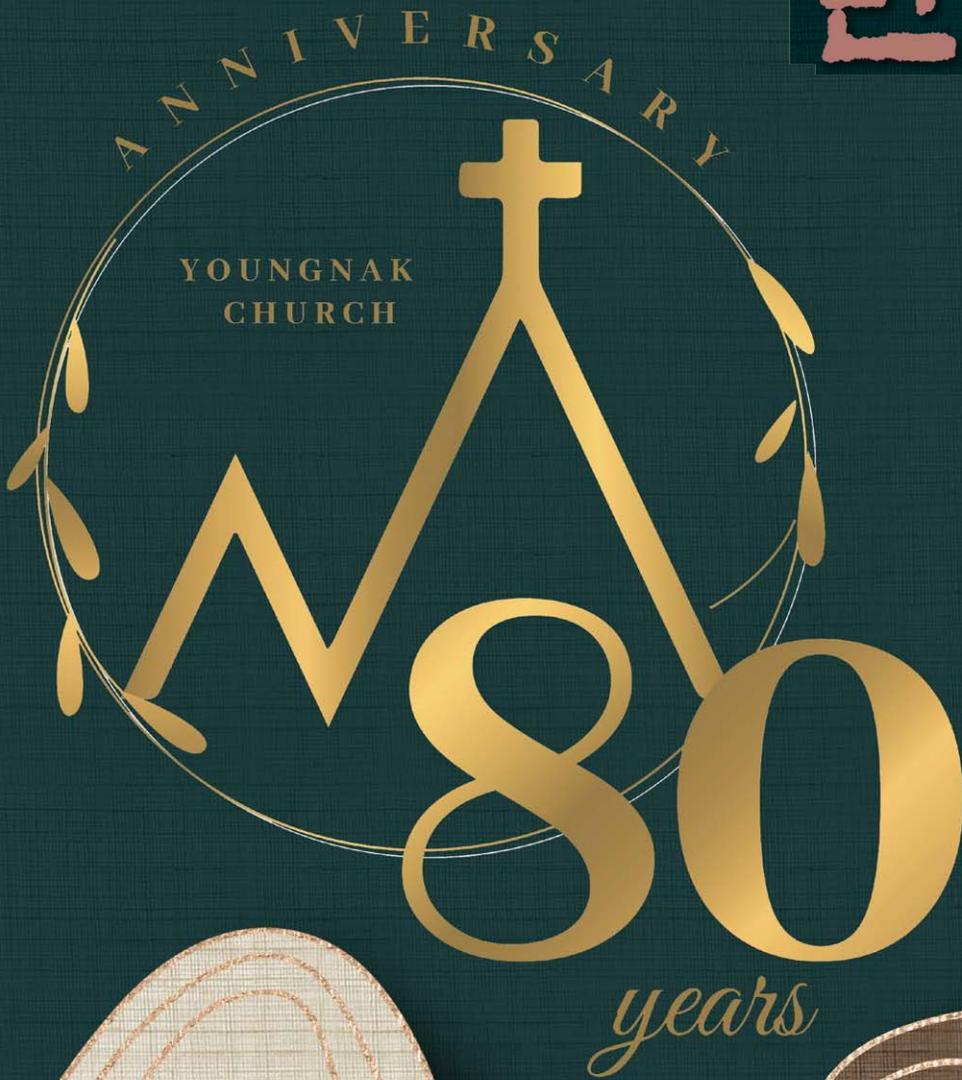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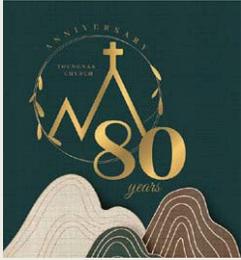
만남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8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중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길 함께 소망합니다.

이번 표지의 80주년 심벌은 국제예배부의 Lia Maure 성도님께서 정성껏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1월 목회력

- | | | | |
|-------|--|-------------|----------------------|
| 01 수 | · 신년예배 | 01 수 ~ 03 금 | · 신년기도회 |
| 04 토 |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5 주일 | · 신임권사 임직 및 헌신예배 |
| 10 금 | ·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12 주일 | · 주일예배 성찬(1~5부), 제직회 |
| 17 금 | ·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 |
| 19 주일 | · 사랑부·고등부·대학부·베드로부·청년부, 자유인, 국제예배 성찬,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 | |
| 24 금 | · 첫달 기도드림 특별금요기도회 | 25 토 | · 교육부 상반기 기도회 |
| 26 주일 | · 사회봉사주일 | | |

만남

2025년 1월호

통권 610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오늘 하루에서 시작하는 100주년 김운성

신년특집 은혜의 80년

05 창립 80년... 사명 헌신하는 교회

08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 인터뷰 장덕진 김태영

다음세대 / 청년광장

14 “교회 가게 친구 만들어주세요” 김서원

16 함께 지어져가는 영락의 3040 이하나

18 차별의 땅에 전한 하나님의 향기 청년부

기독교 인문학

21 실경 넘어 산천의 느낌까지, 겸재의 ‘진경산수화’ 김성아

만남 그리고 사람들

24 하나님의 악보만 연주한 삶이었습니다 인 미

26 절망의 끝자락... 반전 예비하신 주 장순재

29 바보 의사가 남긴 사랑의 선물 하예림

영락의 울타리

32 이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삶 이예찬

34 아이들에게 ‘가정의 품’ 선물하세요 박수봉

36 영락시어터 1월 상영 영화

교회소식

37 코로나에도... 새신자 10명 중 7명꼴 3040

38 전세대가 함께 드린 성탄축하예배 외

48 이임교역자 / 신임교역자

50 2025년 목회분담표(목사)

52 2025년 제직부서 부장·차장

56 피카소 덕에...비둘기= ‘평화의 새’ 정재원



오늘 하루에서 시작하는 100주년

김운성 위임목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
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
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3~5)

그동안 '80'이란 숫자가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교회 창립80주년기념사업이 시작되면서 지난 2~3년 동안 수도 없이 말하고 들었습니다. 매달 두 번째 수요일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기도회 때에도 몇 차례 특별기도회를 했습니다. 올해가 80주년이므로, 80이란 숫자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창립80주년은 영락교회에도 단 한 번이요, 우리에게도 단 한 번입니다. 80이란 숫자가 가슴 깊이 닿도록 느끼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누구보다 진하게 느끼시겠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첫 기초를 놓은 분들이라면 80이란 숫자를 더 절절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0주년, 75주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했을 때, 많은 은퇴 장로님이 80주

년에 뭔가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현대식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한 분들도 계셨지요. 모두 80주년을 기뻐했고,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영역에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젊은 분들은 9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때가 되면 기념행사를 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특히 100주년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100년이 주는 무게감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주년 되는 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100주년이 되는 2045년도 지금의 한 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열두 달인 것도, 계절의 변화도 같을 것입니다. 그때도 영락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해가 중요합니다. 79주년이 있으

니 80주년도 있고, 그 후로도 같은 해가 20년이 더 흘러야 100주년이니, 모든 해가 다 중요합니다. 계단이야 두 세 계단씩 뛰어오를 수 있다지만,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공동체가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다고 시간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제대 날은 하루하루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기쁨으로 사는 게 현명합니다. ‘이제야 그날이 왔네’라고 하지 말고, ‘벌써 그날이네!’ 하면서 맞이하는 게 현명합니다. 80주년에도 전처럼,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듬해도 그렇게 하고, 또 그 이듬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100주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영광교회를 떠나게 될 저도 100주년이 되면 초대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제가 웃자며 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주년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0주년, 100주년을 채운 사람만 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어진 한 해를, 아니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환대하실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최고의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 노예로서의 하루하루도 소중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등 이름이 거명된 이들과 당시의 백성만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중합니다. 그들이 있었

*80주년... 모든 이의 하루하루가 쌓인 결과
하나님 위대한 창조도 빛을 만든 첫날 시작*

*20년 후 맞을 100주년도 오늘의 열심을 요구
시간의 주인 하나님만 보며 부지런히 섬겨야*

기에 출애굽 세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빚지고 있습니다. 김운성 목사가 여기 있는 것은 43년 전에 신대원 1학년이던 세계 장학금을 모아 한경직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전해 준 당시의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0주년을 맞는 현재의 영광교회 성도, 기념사업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8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산하 분과에 속하여 수고하는 분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든 선배님이다 소중합니다. 지금 계시는 분, 먼저 주님께로 가신 분, 다음 세대까지 다 소중합니다. 나중에 100주년의 주역이 되는 성도들은 그때 80주년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한 부모 세대를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으로써 90주년, 100주년의 소중한 일들이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서두르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도 빛을 창조하신 첫날 하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위대한 세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광교회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80주년인 올해를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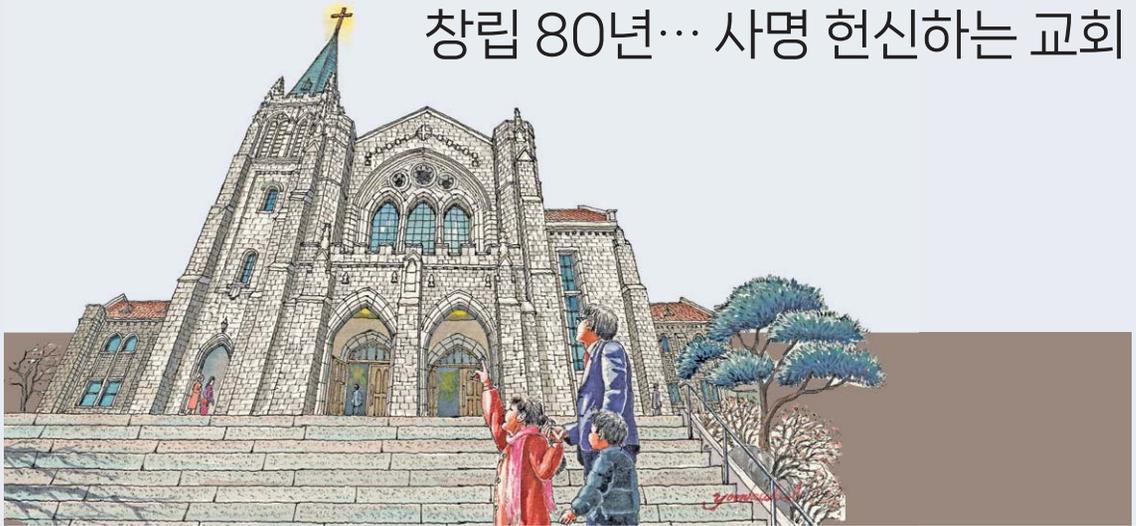


2025년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출3:5,10)

머릿돌

창립 80년... 사명 헌신하는 교회



영락교회 목회 방향 제언

2025년은 영락교회가 설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해를 맞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코로나는 이제 교회에만 남아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여전히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학생 수 감소, 출산율 저하, 성도의 고령화, 종교를 향한 관심 감소, 그리고 비성경적 문화 확산 등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2025년에는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 교회를 지탱해온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30년의 영락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90주년과 100주년을 넘어 교회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프로젝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락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 유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과감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 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와 한국 사회 전반에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참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부흥하는 영락교회가 되도록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락교회의 중점 사역 방향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는 2025년, 성도들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해가 되기 위해 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① 예배의 온전한 회복

예배는 신앙과 교회의 기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핵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화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예배 부흥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현장 예배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예배를 통해 믿음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돕겠습니다.

② 미래 교회를 위한 영적 재구성

이미 많이 논의된 대로 과거와 다른 현실을 반영하여, 교구와 구역 제도를 보완하고 소그룹 모임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3040 세대가 신앙을 바탕으로 활성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이 각 교구에서 조화를 이루며 영락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이끌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2020년 3월에 시작한 <119대작전>과 같은 영적 프로그램, 현재의 <영락오이코스>와 <말씀산책> 등의 목상 자료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에도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할 수 있도록 새롭고 풍성한 영적 자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모든 제도와 조직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와 조직은 성도들의 풍성한 신앙과 선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③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

오늘날 교회가 과거처럼 성장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세화에 직면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락교회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역자와 직원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한 직원이 가능한 여러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일환으로 공유 사무실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장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행정 조직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④ 80주년기념사업과 교회 시설 개선

80주년기념사업 중 일부는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0주년 기념과 관련된 여러 행사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 중인 교회의 장기 수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새로 구매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⑤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한 영락교회의 사명

오늘날 교회는 반기독교적 문화와 법 제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복음 사역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여론 형성 등을 통해 반기독교적 흐름을 막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 인력, 재정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가 요구하는 영락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⑥ 당회원의 기도와 협력, 솔선수범

교회의 사역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회원의 기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미래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운성 위임목사

2025년도 영락교회 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5)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10)

2025년은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간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영락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섬세한 사랑으로 쓰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토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영락교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 새로운 80년을 향한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영락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지난 8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여정에 동참하여,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만남**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꽃'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저자 박영선 목사 인터뷰



‘왜 신앙은 현실에서 힘을 못 쓰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의 균형을 중시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현실 속에서 빚어낸 결과’라고 역설한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남포교회 원로 박영선 목사. 기독교 출판계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저자 박영선 목사의 메시지는 순교의 시대와 부흥의 시대를 넘어 ‘깊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남』 1월호에서는 신년기획으로 박영선 목사와의 대담을 마련했다. 평소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의 성도보다는 ‘믿는 사람의 적극적 책임과 명예’를 강조하는 ‘신 자’란 표현을 즐겨 쓰는 박 목사는 편집진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를 당신 영광의 꽃으로 부르셨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현실은 신자의 정체성을 멋지게 펼쳐낼 기회이자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무대”라고 밝혔다. 박영선 목사와의 대담은 지난해 12월 6일(금) 그가 40년간 설교사역을 펼쳐온 송파구 잠실 남포교회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홍보출판부 지도목사와 부장, 편집장으로 섬겼던 강승훈 목사, 김태영 장로, 권오란 권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정리 장덕진 집사 사진 김태영 장로

목사님은 믿음을 ‘하나님의 열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온 해가 1885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올해로 140년이 된 셈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현실이라는 콘텍스트(맥락) 속에서 어떠한 ‘본문’을 만들어왔는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야 할 신앙의 본문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잘 믿고 안 믿고의 이분법적 이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과정과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일제 치하 순교시대의 본문이 ‘일사각오’였고, 1970년대 부흥시대의 본문이 ‘구원의 감격’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채워가야 할 본문입니다.

한순간도 여호와임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신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해 사랑의 본을 보인 종교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꺼내놓고 자신이 누구임을 설명하고 계신 셈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저는 그 구절을 ‘나는 한순간도 여호와임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으로 적극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 성도의 지성과 진

“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건 신자의 지성과 진심이 아닌 하나님 의지와 열심에 달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 ‘하나님의 役事를 따르고 어떻게 성숙할 것인지’가 돼야 ”

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얼마나 따라가며 사는지, 이를 위해 어떻게 성숙할 것인지’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이해’의 균형을 중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현실에 대한 이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영락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북에서 월남한 신자들이 세운 성도교회가 제 모교회지요. 자라나면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갈등, 반발을 겪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냥 천사처럼 지내다가 생활 현장에서는 드세고 억척스럽게 변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싫은 적도 있었고요, 현실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고 ‘착하게 살기’가 전부인 ‘도덕적 신앙관’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왜 신앙은 현실에서 힘을 못 쓰는가?’ ‘내 존재와 운명은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라는 고민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덤비는 자세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

신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행복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후로 40년 넘게 ‘하나님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에 매달려온 셈이죠.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빛어가는 것
현실이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랑을 ‘하나님의 의리(義理)가 빛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해보죠. 자식은 부모를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속에 펼쳐진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현실 속에서 빛어간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상호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깨우쳐줍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는 ‘옳을 의(義)’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즉 회복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열심 덕에 우리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서 부활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접점으로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셔서 신자로서의 완성과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 **하나님은 돌짜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함으로써 신자로서 완성을 이뤄가시는 분**

**선택없는 자유는 맹종 부를 뿐
순종은 하나님이란 근원과
항상 연결돼 있으라는 명령** ”

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당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돌짜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 영광의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신자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리에 상응하는 자유와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유와 책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보이셨던 특별한 형상 중의 하나가 인간에게 자유, 즉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지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맹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자유를 권리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불순종하죠. 자기가 주인 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끊은 겁니다. 전원이 꺼진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근원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은 생명과 진리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죄는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들어가 할 칭찬
 매일 만나는 이웃사랑부터 시작

한국교회, 영적 성숙과 퇴보 기로
 믿는 자의 성장에 강조점 두고
 삶에서 성화 실천하게 이끌어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게 죽음이 임한 것은 인간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자, 인간은 생명과 진리에서 벗어난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이방인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인간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찾아오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분별과 선택,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갖는 책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때 그 자유라는 선택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가 갖는 책임입니다. 성경은 권리에서 결국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근원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중 최고의 가치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복종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 감격과 찬송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해당합니다. 신자라면 분별의 안목을 키우



대답을 나누고 있는 박영선 목사와 강승훈 목사. 박 목사는 예의와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며, 후배 목회자들을 향한 애정 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다.

고 책임 있는 신자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의 글 중에 ‘신앙이 좋으면 멋있어진다’는 표현이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 지표는 무엇인지요?

기독교 신앙의 성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출생-성장-정체성 확인-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출생은 예수를 만나 신자로 태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린이처럼 몸과 생각이 자라면서(성장)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습니다. 옛날 말로 머리가 굽어지는 과정이지요. 요즘 말로 치면 ‘중2병’입니다. 저는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거쳐야 ‘엄마가 하랬어’가 아닌 자기 판단, 자기 지혜가 생깁니다. 신자에게는 이때가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요구하는가?’와 같은 문제와 고민에 관해 스스로 분별하고 지

혜와 실력을 갖추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어른이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어른답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신자의 명예와 영광이라는 존재에 걸맞은 실력을 지녀야 함을 말합니다. 신자의 명예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긍심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실력은 분별과 선행, 책임으로 쌓아가는 것이며 인격과 성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가 오신 성육신의 연장선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만 죄를 안 지을 뿐인 삶을 넘어서 잘하는 데까지 오르라고 합니다. 잘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일

“ 은혜와 감사로 맞은 영락 80주년
하나님이 無에서 有 창조한 사례
영락만이 할 수 있는 일 계속하길 ”

만나는 이웃을 존중하는 일부러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은 자리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일상 속 현실에서 신앙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자유와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가 오신 성육신의 연장선상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멋진 사람

사랑을 증명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불편한 걸 견뎌야 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멋진 인간다움에서 따라오는데, 인간다움의 첫째 조건은 용서입니다. 용서와 겸손, 관용은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조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聖化)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 직장 신우회, QT 하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기독교만이 지닌 가치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진 구나!” 세상 앞에서 교회가 들어야 할 칭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수축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디에 좌표를 두어야 할까요?

깜깜해지면 별이 빛나는 법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평(世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놔두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는 순교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지나 과도기에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

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원과 부흥의 다음 단계인 ‘신자의 성장’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와 봉사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자’라는 구호는 높았지만, 삶에서 신앙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적었습니다. 복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예의 분별하여 세상의 각종 도전에 감당하는 실력을 쌓도록, 교회가 신자들을 제대로 안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은 현실 앞에서 믿음의 본문을 찾아내고 채워가야 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제언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지난 80년 동안 밝아온 과거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살펴보세요. 맨몸으로 내려온 이북 실향민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의 영락교회를 일궈주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일 겁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 고아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나 미션스쿨 같은 교육사역은 영락교회만이 일구어냈던 일이었고,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과거 팔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를 살펴보고 놀라야 합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영락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영락교회로 인해 누군가 힘을 얻고, 누군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교회 가게 친구 만들어주세요” 어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교회와 떨어진 고2 1년...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기도

고3 수련회 간증이지만, 이야기는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하려 합니다. 수련회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2학년 때 호산나 찬양팀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저는 교회에서 친구도 소속감도 잃게 되었습니다. 점차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은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조차 시기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없는 저는 얼마나 형편없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주님 없이 사는 건 너무 힘들다고, 내년에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에서 교회에 잘 나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스스로 교회 열심히 가겠다는 기도도 아니고, ‘교회 함께 갈 친구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어린 기도를 과연 들어주셨을까요?



김서원
고등부 3학년

좋은 선생님, 챙겨주는 친구들 만나 매주 교회 나와

3학년이 된 저는 열심히 기도해주시는 좋은 선생님과 서로를 챙겨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도, 제 연약한 믿음은 학업과 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라는 욕심이 커졌고,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와 달랐던 것은, 세상의 것에 묶여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매주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잊고 있던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저를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드린 마지막 예배에서, 늘 이해되지 않던 말씀 한 구절이 순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을 따라야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4일 뒤 목요일,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재수하게 됐지만 대학부서 보낼 신앙생활 기대 커

고3 수련회에서 짧은 설교였지만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제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련회에서 대학부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배님들과 어울리며 대학부를 어렵게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앞으로 경험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 선배들 중에는 재수할 때 대학부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혼자 대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수련회 전까지는 재수생은 대학부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선배님들이 “당연히 와도 된다. 꼭 오라”라고 말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부에서 좋은 친구들을 새로 만나 함께 할 신앙생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대학 잘 가더라”라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저 또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를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보려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또 재수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가르치실 것들을 기대하며, 대학부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모든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대학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함께 지어져가는 영락의 3040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하나 집사
종로·성북교구
선교부 3040 활성화 지원팀장

그리스도인에게 올 곳은 교회뿐

김영환의 「올 곳」이라는 동시입니다. 누구나 한 곳쯤은 '올 곳'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올 곳은 '교회'이지요. '영락의 3040 세대인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다름 아닌 '예배 안의 올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제1회 3040 세대를 위한 찬양&기도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첫 번째 3040 세대 찬양&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인 260명, 아이 142명이 함께하며,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가 심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는 청년부와 부부선교회가 함께하는 '3040 연합팀'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무엇을 위해 갈 것인가"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3040 세대에게 마중물처럼 부어져 다시금 신앙의 불을 붙이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재량 목사의 인도로 이어진 기도회는 뜨거운 기도와 열기로 가득 찼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회에 동행한 자녀들은 '환상의 버블쇼'와 맛있는 간식이 준비된 영락 꿈터에서 교육부 교역자님들과 1여전도회 권사님들의 따뜻한 돌봄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며 교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3040 세대가 한마음으로 모여 신앙의 사명을 되찾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조직의 경계를 넘어... 교제와 예배의 연속을 꿈꾸며

기도회를 마치고 많은 감사의 나눔을 살피었습니다. 대형교회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부서 간의 경계가 단단해 외로웠던 우리 3040 세대가 자녀 없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조직의 경계를 넘어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귀한 기도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며, 회복과 은혜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3040 세대가 목말라했던 찬양과 기도의 갈급함, 또한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던 3040세대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락 꿈터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1여전도회 권사님들과 교육부 교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대를 위해 기도와 격려로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영락 3040, 교회의 허리로 잘 심기고 열매 맺길

서로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세대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락교회를 꿈꿔봅니다.

영락 3040 세대는 영락교회의 허리를 이루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청년부, 청년선교회, 신혼부부, 부부선교회, 4남선교회, 4여전도회 등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교부 소속의 3040 활성화 지원팀은 이 세대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예배, 교제를 통해 위로와 사랑을 나누고 교회의 허리 역할로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잘 심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락의 모든 세대가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만남**

Thailand



차별의 땅에 전한 하나님의 향기

**5년 만의 청년부 해외선교
태국 북부에서 4박 6일간**

KlinhumEL(클린험엘)! 영락 청년부가 5년 만에 다시 떠난 해외선교팀의 팀명으로, 태국어 '향기(Klinhum)'와 히브리어 '하나님(EL)'을 합성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는 전통적 불교 국가

인 태국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향기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일서 4:19) 청년부 선교팀은 이 말씀을 기치로 삼아 지난해 12월 12일(목)부터 16일(월)까지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위앙빠오 지역에서 불교학교 3곳, 현지 교회 2곳, 보육원 1곳, 그리고 카렌족마을(소수민족)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해외선교에는 영락 청년 20명을 포함한 총 25명의 선교팀원이 참여했습니다.

태국은 다민족 국가이자 철저한 계급사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소승불교의 승려가 최상위 계층을 차지하고 태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족(다이족), 외국인, 소수민족의 순으로 계층 순서를 이룹니다. 200여 년 전 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복음을 가장 먼저 접했던 이들은 바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태국 현지에서는 소수민족 출신의 현지 목사님들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바탕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월호에서는 태국 현지 사역자들을 도와 척박한 차별의 땅에 참 자유와 행복의 씨앗을 심고 온 영락 청년들의 비전과 은혜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았습니다.

전홍진 집사 _ 79대 청년회장 / 해외선교팀장



한글과 울동 가르치며 은혜... 믿음 단단해져

- 고효권(꿈꾸는땅)

부족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 도전한 첫 해외선교는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팀장의 책임을 맡아 책임감과 걱정도 컸지만, 현지 아이들의 환한 웃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글과 울동을 가르치며 보낸 시간은 큰 은혜의 순간이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제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선교는 제가 무엇을 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단단히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 권지민(광야소리)

처음엔 현지어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어린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웠고, 기대만큼 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발로 설명하며 아이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낮을 가리던 아이들이 점차 다가와 제 이름에 '누(태국어로 '아이'라는 뜻)를 붙여 부르며 친구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대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아픈 태국 친구들을 위해 흘린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4박 6일의 작은 천국

- 안은지(꿈꾸는땅)

청년부 해외선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천국을 살아본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준비하고, 가는 곳마다 찬양과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일쯤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오래 기다리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있던 청년부 해외선교를 주님께서 기다리셨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학교 교장 선생님의 눈물까지 감싸주신 하나님

- 이윤진(꿈꾸는땅)

첫날 방문한 불교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눈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역 체육대회에 초청받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작은 학교를, 우연히 저희가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상이 가득한 학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단순히 설득이나 봉사가 아닌,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한 주님의 향기, 행복의 자양분 되길

- 이은진(모리아)

5년 만에 이루어진 청년부 해외선교는 자료 없이 준비한 탓에 출발 전부터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태국 현지에서 접했던 아이들의 환한 미소, 현지 사역자분들의 따뜻한 도움, 함께했던 찬양과 워십...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태국 땅에 주님의 향기(끌린함엘)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 향기가 그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탄절 전도축제, 훈훈하고 맛있는 만남

- 전원범(주는나무)

현지 교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에 마스크 팩과 과자 선물을 준비해 참석하며,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음식에 감사했습니다. 축제 같은 교회 분위기 속에서 찬양과 워십을 통해 하나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어로 '행복'을 찬양하자, 현지 교회는 한국어 찬양 '은혜'를 답가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현지에서 받은 섬김과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기독교 인구 1%인 나라... 복음의 귀함 새삼 느껴

- 한수빈(광야소리)

현지 땀본위양교회 성탄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에 불과한 태국에서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소수민족인 카렌족 마을에서 보낸 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열방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실경 넘어 산천의 느낌까지 생생 겸재의 ‘진경산수화’ 장르가 되다

천 원권 지폐 뒷면의 그림 <계상정거도>를 아시나요

지난번 풍속화에 이어 오늘은 진경산수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천 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그림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지폐 앞면의 퇴계 이황 초상화는 익숙하게 떠올리지만, 뒷면의 그림에는 관심을 덜 두곤 합니다. 그러나 천 원권 지폐 뒷면에는 정말 놀라운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풍경 속 두 칸짜리 집에서 글을 읽는 이황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로, ‘시냇물 위에서 고요하게 살아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이 그린 이 그림은 이황이 생전에 머물렀던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세(山勢)와 자연을 담아냈습니다.

조선 초엔 관념산수화… 중국 고사·풍경 상상하며 그려

조선 초기인 15세기 우리나라 회화는 중국 남종화 이론에 영향을 받아 이념화된 그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산수화에 주로 투영되어, 당시 산수화는 그



김성아 집사
성남·분당교구
정신여중 미술교사

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화가들은 중국의 고사나 풍경을 상상하며 삶의 이상을 산수화로 표현했는데, 이를 ‘관념산수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념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넘나드는 산세를 상세하게 그려낸 그림으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꾸었던 꿈을 들은 안견이 3일 만에 그려냈다고 전해집니다.

17세기 진경산수화 등장… 조선을 중심으로 세상 보기

17세기에 들어, 야만족으로 여겨졌던 여진족의 통치가 명나라에 이어 청나라로 이어지면서 조선 사대부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즉 진경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정·조 시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문예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진경 문화는 ‘진경산수화’라는 독창적인 예술 형식으로 꽃피웠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는 단연 겸재 정선입니다.

겸재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는 국보로 지정된 걸작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21년 삼성문화재단에서 기증받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왕제색도
(종이에 먹, 79.2 x 138.2 cm, 1751년),
국보 216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인왕제색도> 경치를 직접 보고 인상적 순간 포착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1676~1759)이 직접 인왕산을 보고 그렸습니다. 비 갠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상적 순간을 포착하여 그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나무와 숲, 자욱한 안개를 표현하고 위쪽으로 바위를 가득 배치했습니다. 산 아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산 위쪽은 위로 쳐다보는 시선으로 그려서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영조 27년(1751)에 그려진 이 그림은 이제까지의 산수화가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그린 것에 반하여 직접 경치를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일 뿐만 아니라, 그 화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산수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선의 400여 점의 유작 가운데 그의 화법이 가장 잘 나타난 이 그림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우리나라 ‘진경산수화’의 정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왕제색도〉는 겸재 정선이 75세 때 죽마고우인 사천 이병연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인왕산은 전체가 화강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흰 바위는 먹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흰 여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겸재는 굵고 강한 먹 선을 사용해 바위를 아래로 내려그으며 덧칠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에 젖은 암벽의 거대함이 주는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능선과 나무들은 섬세한 붓질과 짧게 끊어 찍은 작은 점으로 표현해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부분의 흰색은 육중한 검은 산과 명암의 대조를 보이며 공간감도 깊어져 갑니다. 이러한 기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시도로, 산세를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는 겸재의 예술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겸재 정선은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장한 서울 서촌 일대에서 살던 안동 김씨 김창흡의 후원을 받아 학문을 익히고, 14세에 그림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그는 벼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갔고, 우리나라 산천을 대표하는 역작 〈금강전도〉를 그려냈습니다.

<금강전도> '겸재준'이란 자신만의 화법 만들어내

<금강전도>는 금강산을 위에서 내려다본 '부감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를 화면 중앙에 집중시키는 원형 구도와 수직으로 뻗어 내리는 암산들이 특징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겸재만의 독창적인 '준법'입니다. 무수한 봉고를 짝쪽 그려 골짜기의 암산들을 표현한 이 기법은 '평행진선준', 일명 '겸재준'으로 불립니다. 준법은 산수화에서 산들의 요철을 표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법인데, 겸재는 기존에 중국에서 전해진 준법으로는 금강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실제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적인 회화 준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금강전도>는 단순히 산세를 이상화한 그림이 아닌,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우리만의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겸재의 열정과 천재성을 잘 보여줍니다.



금강전도(수묵담채, 130.7 x 59cm, 1734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겸재정선화첩> 독일 베네딕트 수도원서 반환된 작품

겸재가 전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겸재정선화첩>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화첩에는 <만폭동도>, <금강내산전도> 등 총 21개의 작품이 담겨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화첩은 2005년 독일 남부 상트 오펜리엔의 베네딕트 수도원 박물관에서 우리나라로 반환된 것입니다. 1909년 베네딕트 수도회는 서울 백동(혜화동)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초대 수도원장으로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베버 신부는 금강산을 방문하며 『금강산에서』라는 책을 만들 정도로 남다른 감명을 받습니다. 이후 그는 겸재의 화첩을 구입해 독일로 가져갔고, 화첩은 베네딕트 수도원 박물관에서 보존되었습니다.

겸재의 화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경매장에서 약 50억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수도회 측은 이를 거절하고 경북 '왜관수도원'에 영

구 임대 형식으로 본국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지금도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한 기록들과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저는 문화유산이 단순히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넘어, 전해 내려온 과정 역시 하나의 역사로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는 단순히 실경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고유한 화풍으로 우리 산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들도 겸재의 진경산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가 전하고자 했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

하나님의 악보만 연주한 삶이었습니다

-갈보리와 27년 동행마친 박소인 권사 인터뷰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피아노를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 권유로 시작했지만, 주변에서 잘 친다고 하니까 신나서 열심히 연습했죠.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신당동에 있던 한일교회에서 풍금으로 예배 반주를 했고, 5학년 때 남산으로 이사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영락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박 권사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이복 출신(고 박장희 집사/개성 출생, 고 장일화 권사/용천 출생)으로, 초·중·고 등부 시절을 거쳐 임마누엘 찬양대와 청년부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부 시절, 학생 예배 대신 가끔 어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정화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입시를 준비하며 피아노 레슨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인문계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며 자라왔던 터라, 이 사건은 마치 청천벽력처럼 느껴졌다.

그 후 이화여자대학교 독문과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자유로움을 느낀 것도 잠시, 한편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며 복잡한 심정을 안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에도 피아노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교회 반주를 통해 봉사를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음악이 자신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르간으로 경건한 음악하라” 권면하신 목회자들

박소인 권사가 교회 음악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 박조준 목사, 그리고 박창환 목사(전 장신대 학장)의 영향이 컸다. 이 세 분은 자주 “오르간으로 음악을 해야 한다. 경건한 음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박 권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한 울림을 느꼈고, 자신도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영락교회에 미국에서 선물한 새 오르간이 들어오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궁금한 마음에 교회에 가서 새 오르간을 보며 신기함과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 자신의 생일인 10월 24일, 헌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음악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오르간 치며 심기 바흐처럼... 갈보리와 27년 동행

하지만 집안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고, 결국 박소인 권사는 혼자 힘으로 유학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끝에 197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독일 쾰른 국립음대 교회음악학과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마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추지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나치시대를 경험했던 한 교수는 외국인은 교회 음악을 할 수 없다며 수업 시간마다 박 권사를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교회 음악에 대한 박 권사의 열정과 헌신은 그 어떤 방해에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교회 음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흐도 교회 음악가였어요. 바흐는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라, 모든 예배에서 오르간을 치며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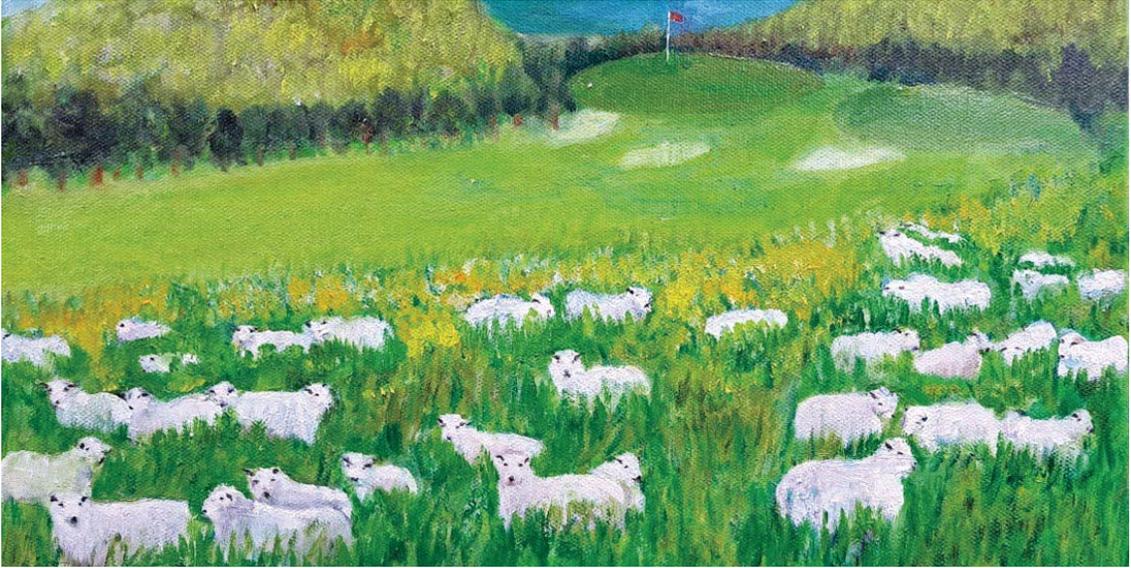
박 권사는 1984년 10월 귀국한 후 연동교회와 할렐루야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며 본격적으로 교회 음악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2월부터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오르가니스트로 헌신하며, 2024년 은퇴까지 무려 2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녀는 한국 오르가니스트 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국내 교회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녀는 장신대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 위해 연주회를 열었던 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는다. 이 경험을 통해 교회 음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고 회상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으로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았지만,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영락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취재·정리 인 미 기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41 x 27cm, 유화, 2022, 장순재 장로작

절망의 끝자락 ... 반전 예비하신 주

사업도 신앙도 순항 속 시련 주신 하나님

너희가 이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8)

군 복무 시절, 전방에서 야간 보초를 서던 어느 날, 문득 구름 사이로 떠가는 달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대하면 교회나 성당을 다녀보자’라고 막연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1년에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 없이 단지 교회 마당만 밟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 삶은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고, 제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생활 형편 탓에 삼사십 대에는 열정 하나만으로 주어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40세가 되던 해에 작은 무역 중개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 3년간 어려움을 잘 이겨낸 끝에 해외 거래업체들과 신뢰가 쌓이면서 실적 또한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껏 높아진 자부심에 회사가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순재 장로
서대문·은평교구
베들레헴찬양대 대장

제 하루는 집과 회사,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대가로 항상 늦은 밤에 귀가 하며 지친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저를 단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공황장애에 파킨슨병 진단까지... 두려움 연습

늦은 밤, 교회에서 행사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순간 저는 당시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끔 찾아오는 증상은 두려움을 넘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증상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안증과 대인기피증은 마치 성난 파도가 파상공격이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며 일에 몰두했으니,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고, 결국 2016년에는 '파킨슨병'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밀려왔고, 저는 하나님께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듯했습니다.

결국 20여 년간 달려온 사업체를 접고 주변을 정리해야겠다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리는 창업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서 단기간에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만 가는 시간 속에서 막막한 현실에 부딪힌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무렵, 주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주요 공급 파트너사의 담당자가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경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일 것이라 예상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장 사장님을 계속 응원하기로 했으니, 어서 회복하는 데 전념하세요" 이 격려의 말은 그 어떤 약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고 확신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제게 일어남으로써,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며, 심지어 제 생각까지도 주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일본 회사에서는 한국에 공급되던 물량이 직접 거래로 전환되면서 저의 수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업무 공로를 인정하여, 매달 공급한 물량만큼 이전과 동일한 이익분을 정산하여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로렘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 사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래처 방문 없이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출장에 부담을 느끼던 저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처한 환경을 십분 활용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함께하시며,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움직이도록만 들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딸의 권유로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 전에는 개인전을 열어 많은 분에게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환자 중의 환자였던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휴무 처리되었던 장로의 직분을 복귀시키셨고, 현재는 기도원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보시는 이마다 “제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라며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주일 대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맡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가 그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 ‘거룩한 부담’이 저를 움직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비록 지금도 매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일은 과도한 바람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감사가 열리니 몸이 힘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가족과 주변 분들이 떠오릅니다.



‘해바라기’, 46 x 53cm, 유화, 2024, 장순재 장로작

이전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움직이게 해주신다면 적어도 1년 동안은 복음 전하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은 제게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는 남은 세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되뇌며, 먼저 파킨슨 환우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성경 읽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읽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독 쯤 접어들어, 지금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위해 택시를 탈 때는 그 시간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제법 몇 분에게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삶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니 실제 몸 상태도 이전보다 나아진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약속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바보 의사가 남긴 사랑의 선물

바보 의사 안수현 형제(1972~2006). 크리스천 의사이자 영락교회 집사로서, 자신을 “스티그마(stigma, 흔적)”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지난 2009년 출간된 유고집 『그 청년 바보 의사』(이기섭 역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너무도 뜨거웠고 신실했던 그의 삶은 많은 이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기독교 출판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안수현 형제의 유족과 한국누가회는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안수현 장학회’를 설립하고, 책의 인쇄 전액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크리스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 1월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한 이후, 2024년까지 총 60명의 장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흘러간 자리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나고,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고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그는 부재중이지만, 그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편집자】

책을 통해 알게 된 안수현 선생님

저는 한국누가회(CMF) 안수현 장학금을 알기 전부터 책을 통해 안수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닮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차례 안수현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11·14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2023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의사로서나 크리스천으로서 병원이나 제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아니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안수현 선생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이신 아버지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된다면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계속되는 경쟁에 지치고, 쉽게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데 급급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셔서 CMF 인도선교팀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이었던 세계 의대생 언니, 오빠들은 모두 능력 있고 멋진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 시간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다녀온 후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저를 보신 어머니께서 “의사를 꿈꾸는 네가 안수현 선생님과 같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꽤 오래전 읽었던 책이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기억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책을 통해 알게 된 안수현 선생님의 삶은 어린 시절 제가 꿈꾸었던 참된 의사의 모습,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매 순간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안수현 선생님의 삶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제 마음에 강렬히 각인되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해주는 장작의 역할을 했습니다. 책을 읽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지금도 끊임없이 떠오르며 지금도 제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제 모습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처음 책을 읽었던 고등학생 시절, 저는 ‘의사로 사는 삶 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닮아가자’ 다짐했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시간을 지켜내는 모습을 가장 본받고 싶었습니다.

당시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의대를 꿈꾸던 제가 쉬는 시간에 큐티를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모습은 간혹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치러지는 방대한 양의 시험 준비로 불안해하면서도 아침 시간에는 큐티를 하고, CMF 예배를 드리며, 매 주일 본가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믿으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예배는 저를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 되었고, 이러한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의 주인공 안수현 형제

의대에 합격한 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주일을 지키며 입시를 준비했던 저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응원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당직표를 짤 때는 저를 아는 동기들이 최대한 주일 당직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지만, 믿지 않는 동기들까지 저의 주일성수를 도와준 배려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쌓일수록 주일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수월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는가?’

의대를 졸업한 후 전공의로서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직을 포함한 36시간 연속 근무가 이어지면서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루 2만 보 이상을 뛰

어다니며 환자를 돌보다 보면, 젊은 20대의 체력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안수현 선생님도 전공의 시절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나, 안수현 선생님과 동역했던 선배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의사 안수현은 언제나 환자나 동료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친절을 잃지 않았던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되새기며 좋은 크리스천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매 순간 되뇌었던 선생님의 모습은 제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 상황으로 정규 소독이나 처치가 늦어지면 화를 내시는 환자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 속상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웃는 얼굴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바로 처치해드릴게요”라고 먼저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후 처치하는 동안 응급 상황이었음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은 잘 몰랐다고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오히려 사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서 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소통하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저 또한 더 진심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작년에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뽑은 최고의 전공의’로 선정되어

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의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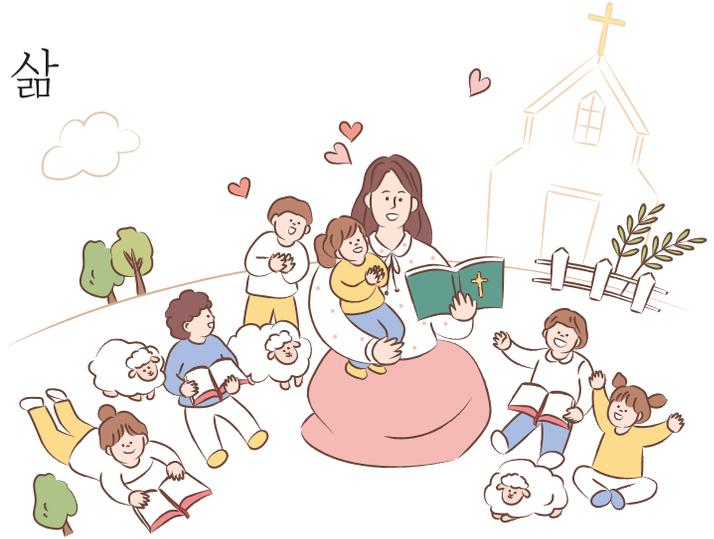
저는 의사입니다. 아프고 지친 환자들을 도울 수 있길 기도하며 의사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보’,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단어를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바보’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챙길 줄 몰랐던 안수현 선생님께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남보다 자신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더 현명한 일로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런 ‘바보’가 되셨습니다. 어찌보면 ‘바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모습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모두가 받기를 소망해야 할 훈장이라고 느껴집니다. 저 역시 안수현 선생님을 따라, 그리고 그보다 앞서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그런 ‘바보’가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만남**



하에림 성도
한국누가회
건양대학교병원

이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삶



『만남』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면서,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특히 신학이라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역자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락교회의 소중한 분들께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노(老)권사님들 심방 따라다니던 목사님댁 꼬맹이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권사님들의 심방을 따라 다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역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 사택 옆집과 뒷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해오신 여러 노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시고, 제가 놀러가면 과일을 깎아주시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심방을 가는 것이지요. 어린 저에게 권사님들과의 이런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까지도 제게는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에서 본 부모님은 참 멋있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

니 두 분 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대로 가정에서도 살아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을 오롯이 드리는 두 분의 모습이 제 가슴에 뜨거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저는 장래희망란에 고민 없이 늘 '목사'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큼 그 의지가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목회자의 삶이 정말 가장 멋있어보였습니다.

구원사역 헌신하는 멋진 부모님 보며 목회자 꿈 다져

물론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가정이었지요. 제가 일곱 살 무렵, 부모님께서 파주에 개척 교회를 시작하시며 어린 제가 보아도 알만큼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제게 알려주신 하나님

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두 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졌기에, 저는 우리 집안의 넉넉하지 못함이 그다지 부끄럽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너머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저 역시 감화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주하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제일 귀한 분으로서 모시게 된 것이지요.

가난한 신학생을 영락교회와 이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는 찾아오더군요.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따라 신학을 시작하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에 합격했지만, 학비와 생활비 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연찮게도 제 모교회에 새벽기도를 나오시던 영락교회 한 권사님의 사랑과 관심이 제게 닿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영락교회 마르다회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선히 돌보시는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주와 서울 중구라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넘어, 서로 알 수도 없었던 저와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신대원을 입학할 때, 또다시 영락교회의 장학 혜택 덕분에 신학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목회자로 준비하는 길에 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길 위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꼬마, 영락의 교역자가 됐습니다

제 이야기 안에서 결국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사용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며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권사님들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한 꼬마가 이제는 영락교회에서 함께 전도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로 성장한 것처럼, 영락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저를 이리까지 이끌어주신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빛을 남겨준 소중한 영락교회 안에서 저는 더욱 낮아지고, 주님 앞에 더 깊어지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2025년에도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길 소망합니다. **만남**



이예찬 전도사
동대문·중랑교구
예배위원회

아이들에게 ‘가정의 품’ 선물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삶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특히 보호가 필요한 고아를 돌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보호대상아동, 특히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양육시설, 그룹홈, 혹은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절반 가까운 많은 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보호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대상 10명 중 4명꼴 그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3,400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있습니다. 이 중 44%(10,312명)가 양육시설, 15.4%(3,603명)가 그룹홈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는 아이들은 40.6%(8,544명)에 불과한데, 이는 전국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4명만이 가정에서 자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보호대상아동 3,160명 중 60.9%(1,920명)는 보육시설, 14.2%(448명)는 그룹홈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단 25%(789명)만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태어나는 아기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일시 보호를 받은 뒤에도 입양되지 못하고 양육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150명의 아동이 이와 같은 이유로 시설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베이비박스 아픔 가진 열 살 영수의 이야기

열 살 영수(가명)는 베이비박스에 들어갔던 아픔을 가진 아이입니다. 선천적 질병으로 입양 절차가 취소된 후 위탁가정에서 지내기 시작한 영수는 위탁가정의 헌신과 주변의 기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언어치료와 위탁가정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학업에도 열의를 보이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위탁 부모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기회였음을 고백하며, 영수와 함께한 결단이 가정을 빛과 소금으로 세운 순간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되는 건 희망의 등지를 선물하는 일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심라·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위탁 보호율이 낮은 현실은 위탁가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지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위탁가정의 절대적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단순히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진 가정의 품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가정에서의 따뜻한 보살핌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비록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돌봄을 시작한 아이이지만, 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등지를 선물하는 일이 바로 가정위탁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0여 가정뿐... 연 100가정 동참 기적 꿈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한 해에 100가정이 위탁에 동참하여, 더 많은 아이가 가정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 10여가정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아름

다운 취지가 널리 알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려는 많은 분이 위탁가정에 동참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위탁가정이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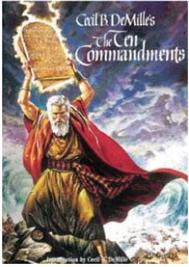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영락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만남**

박수봉 센터장 _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영락시어터 1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십계 (The Ten Commandments, 1956) ALL 220분

5일(상), 12일(하)

감독: 세실 B. 데밀 출연: 찰턴 헤스턴, 윌 브리너, 앤 백스터, 에드워드 G. 로빈슨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날이 번성해가자 위협을 느낀 파라오는 태어난지 얼마 안 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히브리 여인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낸다. 마침 강가에서 놀고 있던 파라오의 딸 비티아가 아이를 발견하고 모세란 이름을 지어준 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이집트의 왕자로 키운다. 세월이 흘러 비티아의 오빠 세티가 왕이 된다.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는 세티의 사랑을 받으며, 공주인 네페르타리의 연인이 된다.



올리버 (Oliver, 1968) ALL 152분

19일(상), 26일(하)

감독: 캐럴 리드 출연: 마크 레스터, 론 무디, 올리버 리드

영국 구빈원에서 생활하는 고아들이 식사하러 들어오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다른 방에서는 간부들이 호화스런 식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죽 한 그릇씩만을 배급받는다. 올리버는 너무 배가 고프나 머지 죽 한 그릇을 더 청했다가 구빈원에서 쫓겨난다. 그 후 런던으로 정처 없이 떠난 올리버는 소매치기 친구를 만나 그들의 소굴에서 생활하게 된다. 올리버는 친구들과 나갔다가 서툰 솜씨 때문에 친구들이 한 소매치기를 자신이 했다고 오해를 사는데...

영락오이코스! 새해에는 놓치지 마세요!

지난 2022년부터 영락 성도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준 오이코스 말씀묵상이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52주 새벽 기도회와 연계된 말씀 묵상과 성경일독을 목표로 6권의 묵상노트와 함께 진행됩니다. 오이코스 영상은 새벽기도회 영상과 동일하며 <김운성 목사>와 함께 하는 말씀산책) 영상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코로나에도… 새신자 10명 중 7명꼴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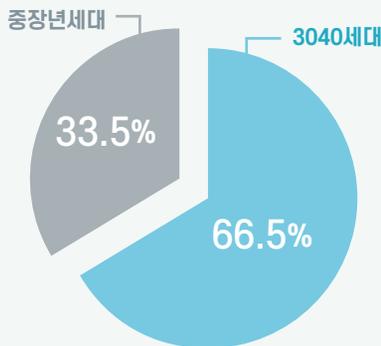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새신자 등록수 매년 870명 달해

코로나의 여파로 한국교회가 교회 수축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일예배 참석자 수의 안정적인 회복과 더불어 3040세대의 교회 유입이 두드러져 교회 공동체 성장의 긍정적 신호로 읽히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교회 교적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교회의 새신자 등록 수는 매년 평균 870명에 달하며, 그중 67%가 3040세대로 집계되었다.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중심인 3040세

대는 그동안 가장 약한 고리로 불린다. 그럼에도 영락교회에 3040세대의 유입이 늘어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가 지속해서 펼쳐온 3040사역이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교회는 주일 4부 예배 순서와 형식을 3040세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3040세대를 위한 전담목사제 도입, 부부선교회와 청년선교회 사역 강화 등 3040세대를 위한 사역에 집중해왔다. 교회 공동체 내 3040세대의 성장은 교회학교의 점진적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2024년 새신자 등록현황



자료제공 : 새가족부

2024 성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전 세대가 함께 드린 성탄축하예배



지난해 12월 25일(수) 성탄절을 맞아 교회와 성도들은 1~3부에 걸쳐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다. 1부 예배에서는 성탄예배 공동기도문을 통해 반목과 분열로 멎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간구했으며, 2,3부 예배는 <전 세대와 함께하는 성탄예배>로 드림으로써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눴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예배 순서 참여가 눈에 띄었다. 유치부(2부)와 유아부(3부) 어린이의 말씀 암송과 사랑부(2부)와 소년부(3부) 어린이의 풋볼 점화로 시작된 성탄예배는 조부모에서 손자손녀까지 3대가 함께 드리는 3세대 기도로 이어졌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여전히 경배하십니까(누가복음 2:8~20)'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마구간에 엮드린 심정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는 영원한 경배자가 되길 바란다"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회 마당에는 올드보이즈의 하모니카 연주와 사랑부의 캐럴송이 울려 퍼지며 전 교인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성탄축하음악회 열려

한편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화) 저녁 7시 30분에는 성탄축하음악회가 할렐루야찬양대 주관으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할렐루야찬양대는 이날 노원일 집사의 지휘와 박미라 집사의 오르간 반주 속에 19세기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의 교향곡 2번 '찬양의 노래(Lobgesang)'를 연주했다. '성경말씀에 기초한 교향 칸타타'라는 부제가 붙기도 한 이 곡은 '호흡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시편 150편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성탄음악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선율을 통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과,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를 느끼며 함께 찬양하길 기도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호산나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

교구 식구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교구별 성탄예배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대림과 성탄의 절기를 맞아 교구 성탄축하예배가 18개 교구별로 열렸다. 지난해 11월 30일(토) 성동·광진교구부터 시작되어 12월 21일(토) 동대문·중랑교구를 끝으로 막을 내린 교구 성탄축하예배는 교구 담당 목사의 말씀과 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 하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겸손히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교구 성탄축하예배는 교구 및 구역 식구들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했다. 성탄 트리로 장식된 무대에 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지회원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 성극과 난타 공연, 게임과 퀴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행운권 추첨 등의 순서를 통해 유쾌한 분위기를 돋우었다.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바이올린, 첼로 등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캐럴 메들리 속에 성탄예배의 밤은 무르익어갔으며, 어린 자녀를 동반한 3040 세대의 참여는 성탄예배의 기쁨을 더욱 끌어올렸다.

또한 교구 성탄축하예배는 한 해의 교구 사역을 마무리하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각 교구별로 은퇴 및 신임 제직, 사임 및 신임 교역자, 구역장과 지회 임원 등 교구 사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소개하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며 한 해 동안 부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은퇴자 시상과 80세 이상 고령 성도에게 선물을 증정하며 훈훈한 나눔의 장을 펼친 교구도 있고, 교구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정성껏 마련한 후원금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도 2024 교구 성탄축하예배를 통해 전해졌다.



교회창립 79주년 기념주일, 장로·안수집사 임직예배도 함께 열려

지난해 12월 1일 교회창립 7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영락의 성도들은 창립기념주일예배와 장로·안수집사 임직예배를 통해 79년간 영락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에 맞이하게 될 80주년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막벨라굴 교회(창세기 49:29~33)'란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영락교회는 막벨라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창립 79주년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제52회 장로, 53회 안수집사 임직예배로 열렸다. 지난 2023년 11월 열린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후 소정의 교육을 모두 마친 장로 8명과 안수집사 14명이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았다. 당회장 김운성 위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임직예배는 서울노회 노회장 이승철 장로(을지로교회) 기도, 이철신 원로목사의 설교, 피택장로·안수집사 서약, 당회장 안수기도, 안수위원과의 악수례, 임직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이철신 목사는 '충성된 일꾼(고린도전서 4:1~2)' 제목의 설교에서 "정직과 성실을 갖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직자들을 격려했다. 조준호 장로는 임직자를 대표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교우들의 기도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52회 장로 임직



조준호



김해용



강상진



문영환



김은형



최혜석



박일수



최범용

제53회 안수집사 임직



신동엽



최판곤



임주성



안승환



정인기



고천석



김성민



김평주



차기영



김상학



김용진



정신한



박용성



한대중

김장 김치, 떡국떡 나누며 훈훈한 이웃사랑

사회봉사부

매년 연말이면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펼쳐온 사회봉사부가 지난해 연말에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과 떡국 떡 나눔, 지하철 을지로3가역 성탄 트리 설치 등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지난해 12월 16일(월) 교회 마당에서는 중구청과 종로구청 담당자, 사회봉사부가 지원하는 미자립교회 및 선교·봉사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는 5kg 포장으로 1,030박스의 김치를 전달했으며, 전달한 김장 김치는 중구 관내를 중심으로 종로구 등 교회 인근 지역의 지원 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배달되었다.

한편 사회봉사부는 교회창립 79주년 기념주일이었던 12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내 80세 이상의 고령 성도를 대상



으로 3,200개의 떡국 떡 세트를 배포했으며, 11월 30일(주일)에는 지하철 을지로3가역 2호선과 3호선 출구에 성탄 트리를 설치했다. 이날 설치된 트리는 연말까지 한 달여 간 분주하고 삭막한 도심 속에서 예수 성탄에 담긴 사랑의 빛을 환히 비추었다.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는 구역장... 2024 구역장대회

목양부

2024 구역장대회가 지난해 12월 6일(금) 목양부 주관으로 본당에서 열렸다. 하반기 연합권찰모임 종강을 겸해 열린 이번 구역장대회에는 구역장과 구역 권사·권찰을 비롯한 구역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회 있는 대로 힘쓸 일' 제목의 설교를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어렵거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며 구역 식구들을 돌보길 바란다"며 구역지도자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심두연 집사(고양·파주교구)와 최희영 집사(중구·용산교구)가 구역장 간증을 통해 구역 봉사의 실제적 사례와 구역장으로서 누린 은혜와 감동을 생생하게 전



달했다. 참석한 구역지도자들은 위임목사의 말씀과 구역장 간증을 통해 구역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축복과 격려로 세워지는 리더십… 대학부 리더십 프로그램

대학부

지난해 연말 대학부는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을 섬길 리더들을 격려하고, 2025년 대학부의 사역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21일(토)에는 2025년 신입 리더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리더스 노트(Leader's Note)'가 열렸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새해 대학



부를 섬길 신입 리더들이 함께 모여 사역 비전을 공유하고 각 마을(성경반) 별로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덕중 목사(교육전담)는 에베소서 2:21~22절 말씀을 통해 리더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함으로써 함께 지어져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22일(주일) 대학부 예배 시간에는 지난해 대학부를 섬긴 50여 명의 리더를 격려하는 '리더 블레싱(Leader Blessing)' 행사가 열렸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학부 리더들은 매주 리더 교육을 통해 양육 받은 후, 주일 대학부 예배 후의 그룹성경공부를 인도하고 교역자와 협력하여 마을 사역을 진행하는 등 대학부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 시간… 중등부 특활반 엠티

중등부

중등부 공동체의 단합과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중등부 특활반 엠티가 지난해 12월 13일(금)~14일(토), 12월 27일(금)~28일(토)까지 2차례에 걸쳐 각각 1박 2일간 50주년기념관 2층에서 열렸다. 13일에는 여디디아 찬양팀, 27일에는 여호수아 찬양대가 참여한 이번 엠티는 중등부 특활반 공동체가 서로 깊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중등부 특활반 엠티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말씀 나눔을 통해 중등부 친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준비한 인물 퀴즈, CCM 맞추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게임을 통해 중등부 친구들



은 잠시 학업의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24 영락기자학교 성료…『만남』 신입 기자 14명 선발

홍보출판부

홍보출판부가 주관한 '2024 영락기자학교'가 지난해 12월 8일(주일) 12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교회 내 문서선교 사역자 및 차세대 크리스천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작년 9월 22일 개강한 '2024 영락기자학교'는 경제전문지 파이낸셜뉴스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기사 작성, 현장 취재와 인터뷰, 편집, 시 활용, 사진 촬영, 교정 및 교열 등 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실무 중심의 1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기자학교에서는 19명의 성도가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그중 14명이 홍보출판부 신입 기자로 선발되어 올해부터 월간『만남』 기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홍보출판부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선발된 신입 기자들이 문서선교 사역자로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활



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들이 펼칠 활동에 교회 내 여러 부서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했다. 영락기자학교는 영락교회의 소통 기능 강화와 문서선교 사역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적인 자원 기자 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영락보린원에 후원금품 전달

영락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의회(회장 황규석)는 지난해 12월 16일(월) 용산구 후암동 영락보린원을 방문,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쌀 10kg 5포대와 후원금 290만 원을 전달하며 영락보린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영락보린원에 후원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들이 자발적으로 영락보린원을 찾아 총 31명의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영락보린원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상호협력하며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의 몸 된 영락교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 봉사하고 은퇴하시는 제직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드립니다. 본 상조회에서는 은퇴하시는 제직이 상부상조하여 노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을 임기로 은퇴하신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 **가입 자격** : 2024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한 제직(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 ☑ **가입 기간** : 2025년 1월 5일(주일) ~ 12월 28일(주일)
-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은퇴제직상조회)
- ☑ **가입 절차** : 배부된 가입원서에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도록 작성 및 날인하여 수납창구에 제출(가입원서는 수납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음)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 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포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

② 회비 납부의무 <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 시 2만원 그 후 매년 1만원
- 부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원

③ 수혜사항 <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6,000,000원 지급 (수권자에게 지급)
- 회원 가입 후 만 17년(204개월) 이후부터는 부조금(1만 원) 납부 면제 <연회비 2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5시까지 ☎ 02)2280-0238> 회장 : 조영리 은퇴장로, 총무 : 오계환 은퇴장로

2024 제직 은퇴식, 장로 6명 등 제직 320명 은퇴

2024년 제직 은퇴식이 지난해 마지막 주일이었던 12월 29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은퇴식 인도를 맡은 김운성 위임목사는 은퇴 제직들의 헌신적 수고에 감사를 전한 후, 직분 은퇴선포와 함께 은퇴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퇴 제직을 대표해서 차재능 장로가 교회 공동체와 성도에게 은퇴 소회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은퇴식에선 교회법(시무 정년 70세)에 따라 장로 6명, 안수집사 19명과 권사 140명, 남집사 85명, 여집사 70명 등 모두 320명이 은퇴했다.



은퇴 항존직(2024년 12월 29일 은퇴)

* 사진 게재는 임직순

장로 은퇴



차재능



김재완



최경식



신은정



김영철



임재광

안수집사 은퇴



김형기



김경민



정해선



신이철



조성권



황찬국



김재을



한봉수



남상일



오영철



김종천



백민석



이세림



신진석



박찬현



박영식



임성기



정광훈



김경호

이임교역자(2024년 12월 15일 이임)



이성재 목사(2019)
영락기도원
2023년 4월 20일 목사 안수



곽영진 목사(2019)
고양-파주교구, 중등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미국 뉴헤이븐한인교회



박명일 목사(2022)
종로-성북교구, 금요찬양팀, 예배(4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문화교회



김하현 목사(2022)
노원교구, 상담부, IT미디어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상현교회



정창대 목사(2021)
용인-화성교구, 교육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잠실교회



최원석 목사(2022)
관악-동작-금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자양교회



김하영 목사(2020)
선교부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탄자니아 선교



한영훈 목사(2022)
인천교구, 예배위원회(기도)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문화교회



박화목 목사(2022)
안양-수원교구, 예배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목사 안수
→ 일산동안교회

* 성명 옆 괄호는 본 교회 부임 연도
아래 기재 내용은 2024년도 담당교구 및 부서

2025년 신입교역자(부목사 1명, 부서목사 1명, 전임전도사 8명)

부목사



박동진 목사
서대문·은평교구, 영락수련원
장신대 대학원 영성신학
낙스칼리지(토론토) 기독교영성
영락교회 전임전도사
대덕교회(대전) 부목사(교구, 선교, 영성)

부서목사



김모세 목사
영락기도원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전임전도사(교구, 목양)

전임전도사



정주언
서초교구, 영락수련원
호남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시온의교회 교육전도사(새가족,
예배, 전도선교)



최 인
선교부
동부신대 실용음악,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구약학
동안교회 준전임전도사(소년부)



강하림
강서·구로·양천교구, 교육부
한남대 기독교학,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역사신학
영락교회 준전임전도사(중등부)



김예담
청년부, 예배찬양팀(수요)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 장신대 신대원
난국신일교회 준전임전도사(중고등부, 찬양)



안태성
용인·화성교구, 예배찬양팀(주일찬양)
청주대 영문학,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교육전도사(유아부)



정근우
안양·수원교구, 중등부
서울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영락교회 교육전도사(중등부)



조수찬
노원교구, 새가족부
장신대 기독교교육, 장신대 신대원
마천세계로교회 교육전도사(아동부, 유아부)



지 산
인천교구, 예배위원회(기도)
영남신대 기독교교육학, 장신대 신대원
승리교회 교육전도사(유년부)

2025년 목회 분담표(목사)



최승도 목사
13교구(서초)
제자양육훈련부 총괄
환경직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



김정희 목사
1교구(강남)
의료선교부



박지운 목사
4교구(중구·용산)
홍보출판부



최한운 목사
9교구(마포·영등포)
경조부



박성은 목사
2교구(강동·송파)
새가족부



김충섭 목사
3교구(성동·광진)
사회봉사부, 친교부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남정열 목사
15교구(성남·분당)
IT미디어부, 할렐루야



김형찬 목사
6교구(강서·구로·양천)
북한선교부, 자유인예배



조두형 목사
8교구(동대문·중랑)
목회행정



전병주 목사
12교구(강북·도봉)
예배위원회, 음악부
인수집사회



최재선 목사
17교구(안양·수원)
상담부, 가정사역
베들레헴



강승훈 목사
5교구(관악·동작·금천)
전도부 총괄, 영락기도대
갈보리



탁현수 목사
16교구(고양·파주)
목양부
권사회



김진우 목사
선교 전담
선교부 총괄, 1남/1여



이후림 목사
10교구(종로·성북)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베다니



이창조 목사
11교구(노원)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임마누엘



오병훈 목사
3040전담
 청년부,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박용준 목사
18교구(용인 화성)
 선교부(국내, 학원, 문화)
 2남/2여, 시은



방덕중 목사
교육전담
 교육부총괄, 대학부
 교사교육부, 교회교육원



황재영 목사
14교구(인천)
 선교부(해외), 4부예배 찬양
 3남/3여, 4남/4여, 갈릴리



박동진 목사
7교구(서대문 은평)
 영성, 영락수련원
 목양부(제직교육, 교재), 호산나



이영호 목사
고등부



신주현 목사
아동부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



이종실 목사
중등부



현성인 목사
IT미디어부
 전도부(주중사역)



정준희 목사
국제예배부



박성민 목사
설악수양관



전재량 목사
3040세대
 청년부,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박찬양 목사
영락수련원



김모세 목사
영락기도원

2025년 제직부서 부장(장료)·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당 회							
	서기 박홍준					부서기 임영환	
선교·사회분과	전 과 부						
		부장 서상현	손두상	이태식	매재원	정재훈	
	배 양 과 부						
		부장 김광식	홍성표	최정국	한요셉	조원형	
	이 명 과 부						
		부장 이명춘	정일형	정일천			
	사 회 과 부						
		부장 정하진	유병천	황규도	박흥기		
	권 역 과 부	과 부 부					
			부장 조용철	권기용	조민태	최현우	강기현

목 양 부



부장 심재수



강명옥



주등면



지금용

전 도 부



부장 김무섭



최영호



강신웅



양동철



박성준

제 자 양 호 학 편 부



부장 차남수



전태성



이두희



김준한

새 가 족 부



부장 김호섭



박상수



김동환



정효선

음 악 부



부장 양성호



김호진



박경도



김우진

친 교 부



부장 양지청



유승우



조동일



변향용

2025년 제직부서 부장(장료)·차장(안수집사 및 권사)

교·구·목·양·관	상담부						
	부장 김철승	김관용	이승호	김영택			
	경조부						
	부장 이원상	김성락	신동헌				
	행·재정관리분과	서무부					
		부장 김순미	이상근	이응준	박석병		
홍무대리부							
부장 김주현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IT미디어부							
부장 임영환		강명구	박승근	안창진	이주형		
재정부							
부장 오현택	변계환	박효진	김신희				

행 · 재정 관리 분과

시설관리부



부장 윤의성



이호정



유경일



이용택

자율봉사부



부장 조병준



최은영



김준섭



김종범



김국진



김한성

예산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신언병



이진하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현재호



신승기



이영진

영광기도원



기도원장 장덕권

행정처



행정처장 이인수

제 직 회



서기 김금성



부서기 괄선미



Peace Dove

1961,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피카소 덕에... 비둘기= '평화의 새'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영향이 큼니다. 그는 1949년,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평화운동에서 비둘기 이미지를 사용하며 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상처와 파괴를 남겼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피카소가 그린 비둘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익숙한 조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피카소는 비둘기를 주제로 한 연작을 다수 제작하며 비둘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관심은 단지 작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49년에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스페인어로 '비둘기'를 뜻하는 팔로마(Paloma)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피카소 덕분에 비둘기는 단순한 새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평화의 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5년 1월호 통권 610호

발행 2025. 1.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욱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2025년 교역자 목회분담표

■ : 목사 □ : 전도사 ● : 파트목사 ◎ : 준전임 전도사 ○ : 파트전도사

예배	예 배 위 원 회	■ 전병주	■ 강승훈(기도)	□ 이에찬	□ 지 산(기도)	
	음 악 부	■ 전병주				
	예 배 찬 양 팀	■ 황재영(4부)	□ 박소망(4부)	□ 안태성(주일찬양)	□ 김 휘(수요) □ 김예담(수요) □ 김진재(금요)	
교육	국 제 예 배	■ 정준희	● 최성은	◎ 변성국		
	교 육 부	■ 방덕중	□ 강하림	사 랑 부	● 전찬욱 ○ 홍준표	
	영 · 유아 · 유치부	■ 홍지연(영아부)	◎ 권희주(유아부)	◎ 윤혜은(유치부)		
		○ 김연주(영아부)	○ 방하민(유아부)	○ 전성은(유치부)		
	아 동 부 (C e b C)	■ 신주현(소년부)	◎ 이빛나(유년부)	◎ 김혜민(초등부)		
		○ 김동현(소년부)	○ 강귀용(유년부)	○ 신지원(초등부)	○ 목정은(CebC)	
	중 등 부	■ 이종실	□ 정근우	◎ 홍하림	○ 손종혁	
	고 등 부	■ 이영호	□ 강주심	◎ 원종인	○ 이하정	
	대 학 부 (베 드 로 부)	■ 방덕중	□ 장대성	□ 김진재	◎ 김철환 ◎ 김홍재	
	청 년 부	■ 오병훈	■ 전재량	□ 김예담	□ 김지용 □ 김 휘 ◎ 홍승표 ◎ 박요섭	
교구 목양	교 회 교 육 원	■ 방덕중	◎ 권현준	3 0 4 0 세 대	■ 오병훈 ■ 전재량	
	교 사 교 육 부	■ 방덕중	◎ 권현준			
	목 양 부	■ 탁현수	■ 박동진	□ 최예녹	□ 양동욱	
	제 자 양 육 훈 련 부	■ 최승도	■ 이후림	■ 이창조(소그룹)	□ 김승겸(소그룹) □ 안태성	
	새 가 족 부	■ 박성은	□ 이태규	□ 조수찬		
	전 도 부	■ 강승훈	■ 현성인(주중사역)	□ 정주언	□ 강주심(주중사역)	
	경 조 부	■ 최한운	□ 이태규			
	친 교 부	■ 김충섭	□ 양동욱(한마음찬양반)	평 생 대 학	■ 김충섭 □ 박소망	
	상 담 부	■ 최재선	□ 김 휘	◎ 이영미	◎ 정효진	
	영 락 기 도 원	■ 김모세		설 악 산 수 양 관	■ 박성민	
선교	영 락 수 련 원	■ 박동진	■ 박찬양	□ 조수찬	□ 정주언	
	선 교 부	■ 김진우	■ 박용준(국내, 학원, 문화)	■ 황재영(해외)	■ 전재량(부부, 청년)	
		□ 최 인	□ 김민혁(외국어예배, 선교훈련)		□ 정근우(문화)	
	의 료 선 교 부	■ 김정희				
	북 한 선 교 부	■ 김형찬	□ 정하민	◎ 정성훈	○(공석)	
	학 원 선 교	■ 박용준	□ 김민혁			
	1남선교회 1여전도회	■ 김진우		3남선교회 3여전도회	■ 황재영	
2남선교회 2여전도회	■ 박용준		4남선교회 4여전도회	■ 황재영		
안 수 집 사 회	■ 전병주		권 사 회	■ 탁현수		
사회	사 회 봉 사 부	■ 김충섭	□ 김지용			
	목 회 행 정	■ 조두형	□ 안재명			
목회 행정	I T 미 디 어 부	■ 남정열	■ 현성인	□ 김민혁	□ 강하림	
	자 원 봉 사 부	■ 이창조		홍 보 출 판 부	■ 박지운	
	한 경 직 목 사 기 념 사 업 회 / 역 사 위 원 회	■ 최승도		□ 김승겸		
교구 (목사& 전도사)	1교구/ 강남	■ 김정희	□ 양동욱	10교구/ 중로·성북	■ 이후림 □ 이태규	
	2교구/ 강동·송파	■ 박성은	□ 최예녹	11교구/ 노원	■ 이창조 □ 조수찬	
	3교구/ 성동·광진	■ 김충섭	□ 강주심	12교구/ 강북·도봉	■ 전병주 □ 김진재	
	4교구/ 중구·용산	■ 박지운	□ 안재명	13교구/ 서초	■ 최승도 □ 정주언	
	5교구/ 관악·동작·금천	■ 강승훈	□ 박소망	14교구/ 인천	■ 황재영 □ 지 산	
	6교구/ 강서·구로·양천	■ 김형찬	□ 강하림	15교구/ 성남·분당	■ 남정열 □ 김 휘	
	7교구/ 서대문·은평	■ 박동진	□ 김승겸	16교구/ 고양·파주	■ 탁현수 □ 김지용	
	8교구/ 동대문·종랑	■ 조두형	□ 이에찬	17교구/ 안양·수원	■ 최재선 □ 정근우	
	9교구/ 마포·영등포	■ 최한운	□ 김민혁	18교구/ 용인·화성	■ 박용준 □ 안태성	
음악부	임 마 누 엘 찬 양 대	■ 이창조	호 산 나 찬 양 대	■ 박동진	할 렐 루 아 찬 양 대	■ 남정열
	갈 보 리 찬 양 대	■ 강승훈	베 들 레 험 찬 양 대	■ 최재선	베 다 니 찬 양 대	■ 이후림
	시 온 찬 양 대	■ 박용준	갈 릴 리 찬 양 대	■ 황재영	교 회 음 악 아 카 데 미	■ 전병주

Peace Dove 1961

파블로 피카소
(Pablo Picasso)



P. Picasso
28.12.61.